

무공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얼마 전 배우 안성기씨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아역배우로 출발해 거의 평생 연기를 해온 그는 배우로서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으로 '나이 들'을 들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자 주어지는 역할이 달라지더라고 했다. 당연히 주인공을 기대하며 시나리오를 받아보면 조그만 역할이 맡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맡기냐' 싶어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다고 했다.



종 상
(청계사 회주)

각자의 무대에서 조금씩 변명으로 밀려나는 것 - 배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일이다. 이전 세대가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나이든 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작사 작곡한 노래 제목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삼십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로 시작해 후렴 '나~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로 끝나는 노래인데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노년은 그렇게 처량하기만 한 시기일까? 오히려 생애 중 가장 활기차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대에 가장 높았던 행복감이 점점 떨어져 50 즈음에 바닥을 친 후 올라가기 시작해 노년이 되면 다시 행복해진다는 내용이다. 원인은 우선 뇌의 변화이다. 때를 비관적으로만 보던 까칠한 뇌가 나이 들면 부드럽고 포용적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깨달음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으로 보내야

시작이다. 노인이 되면 아무 것도 안 해도 존재만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장애'처럼 취급되는 편견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나이가 어려면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면 무시당하는 세태가 되었다.

이 되면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아울러 한평생 터득한 삶의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며 얻는 지혜 혹은 통찰 같은 것일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깨달음이 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회로에락의 이면을 보는 시각도 생긴다. 지금 좋은 일이 지나고 보면 나쁜 일로 연결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삶에 찾아드는 사건들을 담담하게 대할 수가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도 삶의 기술을 높여준다. 나이 들면 무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 노년의 시간에 어떤 존재감을 갖고 살지는 각자의 몫이다.

나라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일선에서 일할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비율이 너무 높아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는 계산이다. '노인 나라' 일본은 2005년 이미 세계 최초로 5명중 한명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인구 10명 중 한 명인데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70년대 통기타 가수 서유석 씨가 70세의 나이로 25년 만에 신곡을 발표해서 뉴스가 되었다. 그가

바른 의도로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

생명 존엄성 일깨우는 정월 방생기도 봉행

지난 2월 25일 청양의 해를 맞이해 신도회(회장 서자비화) 주관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는 의식이며, 선업을 지어가는 적극적인 자비행인 조류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인덕원에서 8시 출발해 11시쯤 백두대간 남서쪽 기슭을 펼쳐다 마친 전복 완주 종남산에 위치한 송광사에 도착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땅을 울리신다는 송광사 미륵 부처님전에서 성행주지스님을 비롯하여 무원, 성견, 명원,

성진스님 집전과 4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방생법회는 천도의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치렀다. 이날 오은숙 불자는 "조류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케 하는 보살수행이며, 자신의 인연 자리에서 업장소멸되어 밝은 내일을 기약한다."며 처음으로 조류 방생법회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이날 주지스님은 천도의식을 치른 후 방생을 한 신도들에게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길 바라며 가지 방생을 항상 실천하라 했다. 그 첫째가 생일 날, 둘째는 해산할 때, 셋째 제일에, 넷째 혼례 시, 다섯째 연회 시, 여섯째 소원을 빌 때, 일곱 번째 중대한 일을 치를 때는 살생 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근기를 살피길 바란다."며 법문을 마쳤다. 이날 송광사 주지 법진스님도 "방생이란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바른 의도

란 선법을 나누는 것이며 바른 의도를 선행에 적용하는 것이며 불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며 법문을 하였다. 이후 송광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점심공양을 하고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된 익산 미륵사지 전사관에서 부처님 사리 친견과 아직도 복원중인 관내를 관망하고 천도법회를 겸한 조류방생법회 일정을 마쳤다. <사진·글 황창성님>



◆천도의식으로 조류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사부대중



◆월월 날아서 건강하게 자라길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12 석밀장을 달이는 사람

수행에 철저한 무소유 정신 자유로운 삶, 중생 구제

o...숯불은 입김으로 불어서 끌 수 있지만, 타는 숯불은 부채 바람으로 끌 수가 없다. 도리어 밀봉까지 다시 일으켜 불길은 더욱 더 거세게 타오를 뿐이다. 불을 끄는 데는 물이 제일 좋습니다. 숯불을 물로 끌 경우, 불타나 재가 날아 다닐 수 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 석밀장이 꿰고 있는 그릇을 먼 곳으로 옮겨야 한다.

o...수행을 하는 데 철저한 무소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것이 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 젖 한 통, 허름한 모포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명성, 이것뿐이요."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검은 석밀(石蜜, 산속에서 채취한 자연산 꿀)장을 불 위에 얹어 놓고 달이고 있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이 석밀장을 이 사람에게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불 속에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부채로 불 위를 부치면서 석밀장이 식어지기를 기다렸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밀봉이 꺼지지 않았는데, 부채로 부친다고 식겠는가."

그때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며 비웃었다.

<예설> 그것은 마치 외도가 왕성한 번뇌의 불을 끌 수 없는 것과 같다. 어찌 외도가 번뇌의 불을 끌 수 있겠는가. 곧 알마간의 고행을 행하며 때론 가시덤불 위에 눕거나 혹은 다섯 가지 불로 몸을 지지면서 맑고 시원하며 고탐한 도를 구하려도 그것은 한갓 지혜로운 이의 비웃음을 받을 뿐 천재의 괴로움을 미래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

이해 인도의 간다가 193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철저한 무소유 정신으로 무장한 삶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나이가 이웃과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기록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문성행 100부 성인기 50부
- ♣ 안양교도소 김창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수원구치소 홍재천 100부 홍준서 10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희용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김정중 50부 손영호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출가절~열반절 기도

부처님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8일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봉행합니다.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원만한 신행 정진을 통하여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3월 27일(음 2월 8일) 사시
- 철야기도 : 4월 2일(음 2월 14일) 저녁 9시~새벽 4시
- 회 향 : 4월 3일(음 2월 15일)
- 기 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 기 도 비 : 3만원

산신기도 안내

기도를 통해 다겁 생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15년 5월 2일(음력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15년 5월 3일(음력 3월 15일) 저녁 9시부터~새벽 4시
- 회 향 : 2015년 5월 4일(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3만원
- 온라인 : 109-030451-01-055(기업은행)
- 예금주 : 청계사

봄맞이 성지순례

관음회에서 주최하는 봄 성지순례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불법이 깃든 성지를 찾아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벚꽃이 활짝 핀 산사를 찾는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22일(수요일) 오전 8시 출발
- 순례지 : 강화 보문사, 전등사
- 동참금 : 4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출구 미가참치앞
- 접수처 : 종무소 031)426-2221,2348 총무 수신성 (010-2352-4853)

청계사 관음회

덕민스님 선시

'창문 열고 봄을 구경한다' 보우스님의 상춘詩

조선조 승유역불정착으로 꺼져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보우스님은 많은 선시를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봄을 맞아 상춘시(賞春詩)를 한 편 배워보겠습니다. 창문 열고 봄을 구경한다는 '개창상춘(開窓賞春)'을 제목으로 한 멋진 시입니다.

춘풍취축죽방한(春風吹蠶竹房寒) 봄바람 불어 대나무방 찬기운 몰아내거늘 활개선상상물환(豁開禪室賞物歡) 선방 창문 활짝 열고 봄을 감상 한다
빙만희문심간향(氷泮喜聞深澗響) 얼음 풀려 졸졸 시냇물소리 즐겁게 들으며 설소경경원산안(雪消驚見遠山顔) 눈 녹으니 깜짝 놀라 먼 산 얼굴을 본다
청귀향류빈미염(靑歸巷柳柳眉染) 길거리 푸른 버들 정그린 눈썹 물들이고 홍인원도소액반(紅入園挑笑額斑) 뜨락에 붉은 빛 복사꽃에 붉은 빈점 만드네
상극번연한거수(賞極翻然閑舉手) 한껏 구경에 빠졌다가 다시 눈을 돌리니 연중장취수봉만(年中蒼翠數峯巒) 어느새 푸른 산봉우리 저녁노을에 빠져드네

선禪에서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바람 진리에 의해 현상계의 차별을 비취 보이는 것이며, 캄캄한 밤 달이 비추고 아침이면 동산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차가움을 몰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뜰에 봄바람을 의미하며 내가 봄바람이다 하면 내가 봄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설이 편편 불락처(好雪片片不落處)'라, 눈이 내리는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데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부처님 절대 진리의 자리를 수행해서 노출한 것입니다. 선에서는 눈을 보는 나 자신과 밖에 내리는 눈을 하나로 보며 능소의 관계를 흐뜨려 버립니다.

물 한 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태평양이 되고 티끌이 하나하나 모여 수미산도 이루지만 물방울이 생기기 이전 공(空)의 자리에 앉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경지에 가야 비로소 물이 제소리를 듣습니다. 이 선시는 용(用)을 포섭해서 본래 체(體)로 돌아가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읊은 시입니다. 봄바람 불 때는 마음을 내서 삼라만상에 짓어보고, 열핏 눈을 돌려 눈 구경, 물 구경, 길거리 버드나무 잎새, 뜨락의 복사꽃을 실컷 그림 그리고는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 암자의 푸른 산봉우리들이 저녁노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다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상상하고 깨닫고 접촉해서 화엄의 세계로 함께 어울려가는 것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연산회상의 풍요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다 제일 마지막에 연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가 쓰웃 웃는 모습, 바로 연화미소입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을 가십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연화미소 속에는 일체 중생이 모두 원만한 진리를 구족하고 청정한 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섭을 대표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연화미소는 불교 최고의 진수를 유정 무정에 통째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며 가십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나 사이에 2천5백 여년의 시공時空 차가 있지만 정법안장의 연화미소 속에는 그 시공의 차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부처님은 절대적 깨달음의 세계에 계시지만 설법할 때는 상대적 차별의 모습으로 내려와 절대적 진리를 보이시고 삼라만상으로 하여금 차별의 모습에 문을 열어 놓고 절대의 세계로 들어오게 합니다. 선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극히 사실적이며 푸르고 붉은 색깔 하나하나가 부처님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불교는 그냥 읽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고 깨닫고 접촉해서 화엄의 세계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신기도 유래와 영험

우리국토는 유난히 산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옛 부터 자연스럽게 산을 숭상 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산신 신앙은 무속이나 용왕신, 칠성신앙과 함께 원시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중의 숭배를 받아왔다.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교리를 갖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토착신은 불교에 수용되었고, 산을 통해 신령과 영통을 기원하고 농경사회에서는 물이나 비바람을 관제하여 한해의 풍년을 좌우했다. 자식을 절치해주고 그 생명을 약구로부터 보호하며 길흉화복을 관장해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복, 강녕, 부귀, 다남은 매우 기초적인 바램이지만 오랜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지혜요 바램이요 가장 큰 소망이었다. 조선후기에 법당과는 한 차원 아래인 각이 생겨나 산신·독성·칠성, 삼신을 모시는 전각이 생겨났다. <글 서용화>

산신을 모셨던 곳인 단, 사, 묘, 당 등에서 봉사 또는 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전각이 제단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큰 산 밑에는 큰 절이 있고 절에는 대부분이 산신을 모시고 있으며 산의 주인은 산신이다. 영험이 빠르다고 평평히 나 있는 산신기도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재수소망, 가내평안, 액운소멸, 우환소멸, 자손창성, 사업발전, 승진, 합격, 치병 등 나와 인연이 있는 곳에서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다 달라도 다양한 원을 다 들어준다. '산신기도는 미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 법에는 방편법이 있듯이 부처님은 중생이 필요로 하면 어떤 법도 다 받아들이시고 펼치신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고루 보살피시고 신중님들은 도량을 옹호하시고 산신님은 당신 앞에 엎드리는 중생을 보살핀다. <글 서용화>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선문염송' 강설

제45강 廬陵의 쌀값과 淸源의 鋤耒子 (여승의 쌀값과 청원의 돌부자)

해능대사의 법을 이은 淸源行忍(청원행사)로부터 百丈橫海(백장회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다음은 청원행사와 6조와의 문답이다. '청원행사가 六조스님께 물었다.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階級(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일찍이 무엇을 하였느냐?' '聖謠(성체)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계급에 떨어짐이 있었단가?' '성체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6조께서 훌륭한 그릇으로 여겼다.' 계급은 자취다. 聖謠(성체)는 거룩한 진리이다. 거룩한 진리에는 원래 자취가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投子靑(투자청)이 볼 수 없는 頂蓋(정고)에 구름은 펼칠 하는데, 劫外(겁외)의 靈杖(영지)는 不帶春(불대춘)이로다. 하고 과거부터 空王殿(공왕전)에 앉지 아니하였거니, 무엇 때문에 띄어별아래서 받을 떨 것인가. 하였다. 다음은 청원스님과 어떤 스님의 대화이다. '청원스님에게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佛法의 大意(대의)입니

까?' 「廬廢(여승)의 쌀값이 어떠하더냐, 하였다.」 적반하장이다. 불법을 묻는데 쌀값은 왜 들먹이는가. 값이 오르는 것은 팔고 사는 사람들의 수량에 달려있거니와 가나오나 쌀은 매 한가지다. 쌀을 먹여 귀천을 기르는데 있지 값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天章楚(천장조)가「여승

자) 하나를 주어서 산에서 살게 하였다.」하였다. 석도가 회양선사의 처소에 이르러 편지를 먼저 전하지 않고 문득 문기를「諸聖(제성)도 思慕(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특한 것도 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떠합니까? 하니, 회양선사가「그대의 물음이 아주 높구나. 어찌 낮추어 묻지 않는가.」하였다. 석도가「차라리 永劫(영겁)의 지옥에 빠질지언정, 성현들의 해탈은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회양이 대답하지 않았다. 석도가 그대로 돌아왔다. 청원 선사가 물었다. 「그대 내가 간지 오래지 않는데 편지는 전했는가.」 「소식도 전하지 아니하고, 편지도 전

했지만 편한데 떨어지는 것은 면치 못한다.」하였다. 다음은 曹溪(조계)의 消息(소식)이다. '청원이 석두에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曹溪(조계)의 消息(소식)이 있다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이는 소식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大藏(대장) 小藏(소장)은 어느 곳에서 얻는고?' '모두가 거기에서 생겨 헛됨이 없습니다. 선사가 심히 율게 여겼다.」 無消息(무소식)이 上八字(상팔자)다. 급한 소식은 喜怒哀(희노애)에 빠지기 쉽고 느린 소식은 寂照(적조)에 파묻힌다. 그러므로 圓悟勤(원오근)이「소식이 있으면 沈陷(침굴)하고 소식이 없으면 轉沒(전몰)한다. 大藏(대장) 小藏(소장)이 이로부터 나온다. 沙土(사토)를 撒(철)하여도 다함이 없다.」하였다. 그리고 또 「단 것은 꿀 같고 쓴 것은 소똥 같으며 맑은 것은 해와 같고 어두운 것은 질 같다. 천년 묵은 들여우의 굴을 부셔 버리고나면 壘舊壘(견구새끼)를 아는 이 드물다.」하였다. 영남의 소식이야 曹溪(조계)의 소식이다. 조계의 소식은 無物(무물)의 소식이요 不善不善(불사선악)의 소식이다. 선악의 골짜기를 뭉기고 뭉겨 大地(대지)를 만들어 아파트를 짓고 다면여기가 거거인지 저기가 거거인지 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다.

구도자의 성공의 지름길 얽매이지 않는 평상심 유지

의 쌀값은 비싸든지 싸든지 하나도 팔 것 없으니 겨울 되면 밭 갈고 봄 되면 쓰레질 하리라.」하고「청원스님의 돌아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月在西兮日在東(월재서해일재동)이로다.」하였다. 천부일도「巨宋(거송)의 山河(산하)가 四百州(사백주)나 되어 物物(물물)이 오고가고 교환함이 있지만 여승의 쌀값은 언제나 그대로인데 天下(천하)의 禪僧(선승)들의 말길은 수다스럽다. 하였다.」 다음은 청원의 鋤耒子(돌부자)이야기다. '청원스님이 편지를 석두에게 주면서, 이것을 남양선사에게 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石頭(석두)에게 전해달라고 명령하면서 돌아오면 鋤耒子(돌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가서 주고받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지난번 스님께서 저에게 鋤耒子(돌부자)를 주시어 산에 살게 한다 하였는데 주시옵소서.」하였다. 선가 한쪽 밭을 드리우니, 석두가 절하고 남악 산에 들어가 살았다.」 문거는 회양선사께서 대꾸하지 않은 곳을 代(대)하여 '널죽을 짚어진 자다.」 하였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돌 부자란 무엇인가. 무딘 도끼다. 무딘 도끼 하나를 가지고 남산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海印信(해인신)이 말했다. 「順水使船(순수사선)은 오히려 쉽게 나와 逆風把柁(역풍파타)는 세간에 어려운 일이다. 널조각 짚어지면 좋기는

뉴스 & 뉴스

청계불교대학 4회 입학식



지난 3월 10일 오후2시 선불장에서는 불교의 믿음과 바른 이해를 배우기 위해 30명의 수강생이 동참한 가운데 제4회 불교대학 입학식이 있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하였다. 이날 강사 성담스님은"어떤 일을 함에 있어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듯이 수강생 모두가 열심히 출석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라 하고 또한 "부처님을 올바르게 믿고 받아드리고 행동하기 위하여 부처님 법을 꾸준히 공부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한 달 4주에 걸쳐 명원스님의 기본 교육을 받은 다음 입학하게 되었다. 이어 선배인 불교대학 동문회가 마련한 차담을 즐기며 자신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글 조여래>

을 6조가 차지한 가운데 주지스님이 주신 금일봉으로 상금은 여섯 조에 고루 전달되었다. <글 상락회간사 박원행>

과학성, 철학성, 종교성이 기본인 불교

12일 경전반 아함경 개강
지난 3월 12일 오후2시~4시까지 40여명의 불자들은 진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경전반 아함경을 개강에 동참 하였다. 이번 경전반은 중앙승가대 포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제2회 영축문화재 학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응철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이날 교수는 한 학기 강의할 내용으로 "불교의 특징은 과학성, 철학성, 종교성으로 관찰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며 전반적 개요를 말했다. 이날 2014년도 불교대학에서 불교의 믿음과 성실함을 갖춘 4명의 불자에게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전반 강의로 일부도 지원해 주었다. 그 중 김자행(대현)거사는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나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어 경전반도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해가 거듭 될수록 공부의 열기가 더해져 더욱 정진하는 터전이 되도록 기대해 본다. <글 황철량>

화합과 소통으로 보살행을 실천하자

정초 7일기도
지난 2월 21일(음 1월 3일) 야외법당에서 사중스님들을 비롯하여 불자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정초7일기도를 임재했다. 사시에불 후 주지 성행스님께 세배를 하며 "건강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작은 소망부터 발원하여 한 발 자욱씩 앞으로 나아가 이루어 질수 있는 기도를 하자"는 덕담을 하였다. 이어 27일(음 1월 9일) 회향일 에는 회주 종상 큰스님께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종상스님은 각 봉사단체에 "서로 화합하여 올 한해도 봉사에 힘쓰고 복 많이 짓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준비해온 단주를 선물했다. 설을 맞이한 청계사는 예년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 탓인지 많은 신행단체 불자들이 올라와 서로 반가운 인사를 하며 신년 하례식을 마쳤다. <글 박문성>

부림을 깨는 동시에 마음 깨우침

정월대보름 풍요, 건강 기원
지난 3월 5일(음 1월 15일) 야외법당에서 사중스님들과 불자 200여명은 정월 대보름법회를 봉행했다. 합창단의 "관세음보살" 음성공양과 삼귀의례에 이어 주지 성행스님은 "음양사상에서 달은 여성으로 인격화

되어 여신, 대지로 표상되며 우리조상들 또한 달의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곡식과 연관 지어 농사를 시작하는 첫 달, 달이 가득 차는 정월보름을 한해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며 "동안겨 해제일이기도한 오늘,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한다."고 했다. 이어 "부림을 깨면서 미움과 증오를 용서로 승화시켜 보듬달을 보며 나쁜 업이 다 벗겨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올미년 새해 각 가정의 한 해 소망을 적어 외불전에 올렸던 소원지를 참회진언을 봉독하는 가운데 소하며 법회를 마쳤다. <글 심대덕>

중국 예술단 청계사 방문



지난 3월 8일 오후3시 중국 산서화해예술단(단장 장진평) 단원 30여명이 청계사를 방문했다. 이번엔 방문한 예술단은 3월 7일 불교 TV 개국20주년 기념식 축하공연차 내한했으며 청계사는 주지 성행스님의 초청으로 와 성경스님의 사찰소개로 편안 마음으로 경내를 돌아보고 차담한 후 주지스님은 방문한 예술단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염주와 합장주를 선물하였고 장소를 이동하여 진행한 저녁 만찬 행사는 주지스님의 그동안의 활동 슬라이드를 보면 즐거운 식사를 했다. <글 조여래>

3월 7일 불교 TV 개국 20주년을 축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BTN 방송이 3월 7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영상포교 개국 20주년 기념법회를 전국 후원자와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기념식에서 불교영어채널 설립 등 불교종합미디어로 도약, 해외 송출 확대로 한국불교 세계화 선도, 신문화확립으로 젊은 층 포교, 불자 공동체로 웰 라이프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15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100년의 한국불교발전을 약속했다. 이날 청계사는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하여 신도와 스님 50여명이 법회에 동참 화합했다. <글 서용화>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24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 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봉선사

고려 광종 20년인 949년에 승려 탄문이 운악산 자락에 절을 창건하고 운악사라고 부른 것이 봉선사의 전신이라고 전해진다.

봉선사로 이름을 바꾼 것은 조선 예종 때인 1469년이다. 왕의 어머니인 정희대비가 죽은 남편 세조의 능을 운악산으로 이장하여 광릉이라 하고, 이 절을 세조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삼아 '선왕을 받들다'는 뜻으로 봉선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예종은 친필 현

관을 하사하기도 했다. 1551년에는 교종의 으뜸 사찰로 지정되는 등 사세가 번창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소실된 것을 1637년에 복구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또다시 전소되어 현대에 복원한 건물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태허(운암 김성숙)스님, 운허스님이 머물렀고, 운허의 친척 형이 되는 이광수도 은거한 일이 있다. 이 때문에 이광수 기

념비가 절 입구에 세워져 있다. 교종 본찰 실질적인 중창주 월초대화상은 개화상상과 신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재래의 불교를 탈피하고 일본의 발달된 포교방식을 받아들여 한국불교를 혁신시켜 근대화하기 위해 큰 뜻을 세웠다. 1902년 동대문 밖 원흥사를 창건하여 전국사찰의 관리서를 두었다. 원흥사

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백년 앞을 내다보는 한글대장경 시원(始原)인 운허스님과, 승속을 넘나들며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태허스님(운암 김성숙), 남북한 문학을 통틀어 조선의 "고리끼"로 격찬 받은 1920년대 최고의 문학가 서해 최하승, 한국 신문학의 개척자이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

보고 싶은 절 밟고 싶은 도량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는 도량

가 문을 닫게 되자 이곳에 있었던 불상, 탱화, 불구 등 모두 봉선사로 옮겼다.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스님은 무엇보다 근대적 교육의 필요함을 절대적으로 느껴 1905년에 원흥사 자리에 동국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1906년 봉선사의 교종관사가 된 후 줄곧 봉선사에 머물며 꾸준한 가람을 증수하며 제

문호 춘원 이광수도 봉선사와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춘원 이광수는 젊은 시절 경쟁자이자 노년기의 의지처인 운허스님과 육촌간이었다. '민족개조론'을 일으켜 민족진영에서 소외되고 변절자로 낙인찍힌 춘원이 방향하고 있을 때 운허스님은 평소 "법화경"을 한 절을 저다주어 법화경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그 뒤로 춘원은 불교의 세계에 심취하여 스스로 '법화행자'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춘원의 입산을 위해 봉선사 담 옆에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추사체로 다경향(茶經香)이라 액자를 걸어 이후부터 운허스님은 다경향실이라고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

이렇듯 봉선사는 예로부터 교종 본찰로서 많은 고승대덕이 배출되고 수백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사들께서 삼보를 호지하고 수행정진하며 가람을 잘 보존해준 은덕으로 옛날에 견주어 모자람이 없는 교종 본찰의 위용을 이어가고 있다.

위로는 삼보를 받들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의 도량과 포교 수행도량으로서 고려대장경을 우리 한국말 대장경으로 기록해 낸 이 시대의 중요한 도량으로 우뚝 서 있다.

<정리 황형람님>



성행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생애 26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

붉은 옷을 입은 진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불교 공동체가 확립되고 라자가하에 이어 웨살리, 사왓티, 포삼비에 차례로 정사들이 건립되자 비구와 비구니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그 제자들에게 예배하고 보시하는 이들로 거리마다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자 예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지혜와 덕행을 배우기보다 명성을 탐하는 비구와 비구니가 생겨나고, 종족과 계급으로 우열을 논하며 무리를 짓는 이들도 생겼다.

사왓티 사람들의 마음이 불교에 쏠리게 되자 시기와 질투로 이성을 잃은 외도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리에서 떠돌았다.

"사문 고타마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도 고행을 했으니 고타마처럼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도 보시하는 자도 큰 과보를 받을 것이니 우리에게 보시하라."

어떤 방법으로도 부처님과 제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절고 아름다운 소녀 진짜를 부추겨 부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기로 했다.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직 그대와 나만이 알 것이다.

곱게 화장을 한 진짜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향과 꽃을 들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에 기원정사 앞에서 설법을 듣고 기원정사를 나오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한 달이 지난 뒤 사람들에게 "고따마의 방에서 자고 오는 길이다"라고 속삭이며 삼 개월이 지나 진짜는 배에 천을 감고 임신한 여자처럼 붉은 옷을 입고 "어려운 나는 사문 고타마의 아기를 가졌답니다."

이윽고 아홉 달이 되자 당당한 걸음으로 기원정사로 들어가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 섰다.

수많은 신자들의 응성거림을 즐기기도 하듯 "대사문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군요. 그렇지요, 당신의 속삭임은 참 아름답지요. 당신의 입술은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당신이 나에게 선물이 이 아이지요....."

진짜의 무서운 연극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보고 계시던 부처님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여인이여,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직 그대와 나만이 알 것이다."

그때였다. 몸부림을 쳤던 진짜는 몸에 동여뒀던 끈이 풀어지면서 옷 속에 감추었던 둥근 나무그릇이 발등에 떨어졌다.

설법을 들으러 기원정사를 찾았던 사람들은 짐을 뺀고 육과 휴령 어리를 던지며 기원정사 밖으로 진짜를 내쫓았다.

사왓티 사람들은 잠시나마 부처님을 의심한 자신들을 책망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우리절 명장면



◇ 우리부부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진 심대덕님>

사찰음식 배워보기

두부 다시마 말이

재료:장, 당근 50g, 풋고추 2개, 들깨가루 1큰술, 깨소금 1큰술, 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후추 약간

식혀 둔다. ③ 두부는 곱게 으깨어 물기를 꼭 짜 둔다. ④ 당근과 풋고추도 곱게 다져서 으갠 두부와 ②의 버섯과 함께 양념을 하여 볶아 식힌다.

⑤ ①의 다시마에 ④의 양념된 두부를 손가락 크기로 만들어 놓고 다시마를 세로 놓아 감바처럼 말아서 적당하게 자른다.

⑥ 초고추장이나 양념간장에 찍어 먹는다.

<정리 주은숙>

만드는 법:

① 다시마는 물에 담가 불려서 정사각형으로 잘라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 둔다.

② 표고버섯은 더운물에 불려 곱게 다져서 팬에 살짝 볶아서



옛날 매우 늙은 수행자가 깊은 숲속에서 살았다. 그는 매우 자비로우며 어떠한 생물도 죽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고목아래 앉아있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눈을 떴다. 그때 한 마리 작은 새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보였

다. 그러자 수행자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새에게 또 자신에게 말했다.

"그대 네가 내 무릎을 헛대로 생각하나 보구나. 좋아, 너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아미타불, 좋아, 좋아."

<정리 주은숙>

불살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13 내 무릎이 너의 헛대

"편히 자거라.

충분히 잔 후에 멀리 날수 있단다"

그 순간 새는 그의 무릎 위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수행자는 그 새가 꿈꾸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을 바라보며 깊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한참 후 수행자는 명상에서 깨어났으니, 그 새는 여전히 편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새를 깨우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미타불. 편히 자거라. 충분히 잔 후에 멀리 날라 갈 수 있단다."

마침내 그 작은 새가 깨어나 날개를 펴며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몇 번 지저맸다.

그런 후 부리로 깃털을 가다듬고 날개를 몇 번 더 퍼덕거렸다. 그러더니 서서히 멀리 날아갔다.

새가 멀리 날아간 후 수행자는 일

었다. 그는 작은 새가 시야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무를 떠나 작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연지 주평스님

<중곡 명나라고승>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중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약사재일 기도
음력 매월 8일 오전 10시 30분
(삼세인과경)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30분
(다라니주력기도)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108배 참회)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경)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불교 교양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새벽 예불
매일 새벽4시

◇ 저녁 예불
매일 저녁 6시30분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월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행자 모집 안내

귀희심보하얏고, 선종종조 정혜선사가 출가한 천년고찰 청계사에서서는 불종의 혁명으로 명현의 해탈코자 승가의 뜻을 갖고 계신 행자를 모집합니다.

- ✦ 지 리 : 고을마성 또는 동동마성의 차력요건을 갖춘지
- ✦ 년 령 : 만 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자
- ✦ 모집기간 : 불기 2559(15)년 12월 31일까지

대자유인, 바로 당신!
출가의 길!
불법의 길!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결심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서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송광사로 봄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다음 성지순례 기약하며 하루를 마무리

성지순례를 가기로 한 전날 밤 거주인 차기환씨, 임상현씨, 모상천씨는 긴장을 하면서 잠을 잘 못 자는 모습을 보였다. 출발 아침이 되자 부산스럽게 세 사람 모두 준비를 하고 배정된 관광버스에 승차하자 보살님들이 저희 녹향원 거주인들을 반겨 주시며 "장세진씨는 안 왔어요?"라고 일부 보살님들께서 물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못 왔어요" 하자 "다음에는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쉬워했다.

상천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여서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여 뒤쪽의 계단 아래 바위에



걸쳐 앉아 쉬도록 하자 웃는 모습을 보였다. 방생 법회가 끝나고 송광사에서 점심공양을 한 다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러 이동 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를 차기환씨와 모상천씨가 환참을 보고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 "사리에요 사리" 라고 차기환씨가 대답해서 전시관 설명서에 있는 부분을 읽어 주며 설명을 해주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녹향원으로 귀환하여 취침준비를 하며 세분에게 "다녀오시니 어떠셨어요?" 물어보니 세분 모두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너무 만족한다고 하였고 우리는 다음 성지순례를 기약하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글 생활재활교사 왕중호>

2015년 2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Table with columns for 수입 (수입) and 지출 (지출) categorized by month and type, including total amounts and specific items like administrative fees and facility maintenance.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5년 2월 12일~2015년 2월 28일)

- List of donors categorized by amount: (직접납부)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자등납부) 5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지로납부) 20,000원, 10,000원, 5,000원.

※ 특별 후원금 명단

김재기-300,000 / 은누리관광-100,000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320,000 장세진-400,000 / 차오름회-150,000 / 허정옥-500,000 / 추현주-1,000,000

※ 물품 후원

농협상품권50만원(의왕시의회), 은누리상품권30만원(서울구치소), 굴10kg, 두유 1박스(한상준) 훈제오리2kg(청계사 강은주), 쌀40kg, 솜옷 털조끼류(권계옥), 배15kg 사과10kg(임유경) 은누리상품권30만원 과일 두유 과자(늘어춘공사), 황태13봉(삼성에스원), 떡(현대위아), 쌀60kg(삼미주유소) 한우패(착한고기), 떡 라면 과자 과일(김성조 가족), 빵(이상윤), 배1상자(청계사 주지스님), 한라봉1박스(배진석) 떡3kg 과일15kg(청계사), 굴10kg 사과10kg(모정희), 롤케이크(김정주), 화장품 치약 비누 참기름 와인(노정희) 과자음료수 20인분(이동현, 김영빈, 윤해찬, 이정민), 만두 캔디 한우 떡국(옹화사 신도) 멸치500g*2 소불고기3kg 냉동조기*3 냉동소고기5kg 김한똥(여래장)

※ 자비 나눔 저금통

화이트 8230, 화이트 9200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 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 분은

-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2월 자원봉사자 현황

- 단체 : 삼성에스원, 서울구치소, 한국농어촌공사, 은누리 관광, 청계사 유학교, 옹화사보현회
성인 : 장병수, 이석진, 이영진, 윤여송, 오인희, 김명자, 김도윤, 신현숙, 윤현숙, 이석훈, 이준호, 배진석, 김용익
가족 : 김우식가족, 이주용가족, 조성범 가족
학생 : 이정민, 윤해찬, 이동현, 김영빈, 한지현, 김다윤, 김상균, 이흥모, 이민희, 김세빈, 오정철, 강경필, 김성재, 김정수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지혜의 등불

행복한 만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카를타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는 것처럼 나뭇잎이 바람에 춤을 추듯이 서로가 서로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 기타 등등의 만남 작은 것에서부터 사물의 존재까지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맹구우목(盲溝偶木)과 같이 어렵고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했듯이 어렵다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여법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요, 큰 행복을 우리는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인연으로 믿음과 원

인간의 행복·불행 만남을 통한 듯

좋은 인연은 믿음·행원 잘 행해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곡식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니까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구슬이라도 가슴으로 품으면 보석이 될 것이고, 흔하디 흔한 물 한잔이라도 마음으로 마시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속에 친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그 순간의 위기만 생각하며 넘기려는 진실성 없는 사람은 미움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벚꽃과 나의 만남은 꽃잎이 햇살에

을 세워 행(行)을 잘 해야 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나온 세월 만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통성명도 나누고, 새로운 정보도 나누고, 때가되면 지식과 상식도 나누고, 식사도 차한 잔도 메시지도 나누고, 서로주고 받다 보면 새로운 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만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봄의 향기가 나의 몸과 마음에 가득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불자님들의 가슴속에도 봄의 향기가 가득 하시기를 바랄합니다.

생활의 지혜

* 달걀을 흘렸을 때 닭기

소금을 뿌린 다음 10분쯤 그대로 놔둔 후 닭아내면 달걀이 잘 닭아집니다.

*전화기 청소하기

식초를 두 셋 방울 떨어뜨린 후 물로 닦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때가 덜 타기 때문이죠.

*말 국질 멈추기

설탕 한 스푼 분량을 입에 넣어서 다문

다음, 혀를 윗턱에 대고 녹은 설탕을 조금씩 삼킵니다. 그래도 멎지 않으면 몇 번 반복하면 분명히 말국질이 멈춘다고 합니다.

*거울 얼룩 지우기

식초 하나와 젖은 수건만 있으면 ok! 젖은 수건 위로 식초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준 후에 수 수 닦아 주신다면 광채 나는 거울로 변신!!

<정리 공은정>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재미로 보는 이따의 운세

<정리 공은자>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haracteristics. Row 1: 쥐띠 (36년생 행운을 바라는 것은 무모하다), 호랑이띠 (38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의하라), 용띠 (40년생 의욕은 왕성해도 때가 아니면 이뤄지지 않는 법), 말띠 (42년생 동료와 선후배가 도와준다), 원숭이띠 (44년생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라), 개띠 (34년생 작은 질병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Row 2: 소띠 (37년생 당분간 고생은 하겠지만 차차 회복될 것이다), 토끼띠 (39년생 내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려라), 뱀띠 (41년생 경계망동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양띠 (43년생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태도가 수리다), 닭띠 (33년생 급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현재를 즐겨라), 돼지띠 (35년생 친구나 선후배와 자주 만나 정보를 교환하라).